

시사원정대 NIE 2022-5 월호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 주 수업 계획표

1 주 수업 내용

2 주 수업 계획표

2 주 수업 내용

3 주 수업 계획표

3 주 수업 내용

4 주 수업 계획표

4 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교재 들여다보기

1) 시사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2) 경제탐험

최신 경제 뉴스와 경제 키워드 및 주목받는 슈퍼리치를 둘러싼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영화·드라마·웹툰 등을 활용한 경제 지식을 쌓으며 돈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IT 융합탐험

최근 IT(정보기술)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첨단 기술과 환경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4 차 산업혁명시대와 필환경시대에 걸맞은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4) 문화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코너. 순수예술부터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에서의 체험 등 폭넓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매달 한국학교사서협회 소속 현직 사서선생님의 추천도서를 읽고 토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리딩북(별책부록)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뉴스, 신문의 사설·칼럼·기사를 10대 눈높이에 맞춰 정리합니다. 읽기 능력과 논리력,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5) 리치북(책 속 부록)

최신 주목 받았던 경제 이슈 중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금융경제 상식을 쌓고 자신의 생활에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4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NIE 5월호 4주 (90분)		
학습 목표	소비자물가와 앵겔지수의 개념과 물가가 오른 배경을 이해한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만든 물건을 만드는 기술과 목적에 대해 알아본다.		
활동 초점	- 소비자물가와 앵겔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생활과 연결해 생각해본다. - 이산화탄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에 관해 알아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 리딩북(별책부록) 18~23 맞춤사설 고급 - 월 물가상승률 10년 만에 최고	- 소비자물가	20
	- 72~75 미디어 속 경제 - 우리 집 앵겔지수는?	- 앵겔지수 - 코로나19와 경제 상황에 따른 앵겔지수 변화	40
	- 90~93 에코 스토리 - 이산화탄소를 잡아라!	- 이산화탄소 - 환경	20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 주 수업 예고	- 일주일 동안 우리 집 식비를 바탕으로 한 앵겔지수를 계산해보자.	5

[40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NIE 5월호 4주		
학습 목표	앵겔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소득과 앵겔지수는 어떤 관계인지 이해한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만든 물건을 만드는 기술과 목적에 대해 알아본다.		
활동 초점	- 소비자물가와 앵겔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생활과 연결해 생각해본다. - 이산화탄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에 관해 알아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 72~75 미디어 속 경제 - 우리 집 앵겔지수는?	- 앵겔지수 - 코로나19와 경제 상황에 따른 앵겔지수 변화	20
	- 90~93 에코 스토리 - 이산화탄소를 잡아라!	- 이산화탄소 - 환경	10
마무리	- 다음 주 수업 예고 - 신문 스크랩하기(스케치북활용) 활동 안내	- 일주일 동안 우리 집 식비를 바탕으로 한 앵겔지수를 계산해보자.	5

맞춤사설 고급

월 물가상승률 10년 만에 최고

<어휘 UP>

원유: 땅에서 뽑아낸 그대로의 기름.

원자재: 목재나 석탄처럼 공업 생산의 원료가 되는 것.

농축수산물: 농산물(밀가루 등)과 축산물(돼지고기 등)과 수산물(고등어 등)을 합친 것.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인접한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과거 공산주의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이 만든 국제기구)에 가입하려 한 것에 러시아가 불만을 품으면서 벌어진 전쟁. 올 2월 러시아의 공격으로 시작됐다.

복구: 원래대로 회복함.

전략비축유: 국가 간 다툼이나 사고로 석유의 정상적인 공급이 중단될 때를 대비해 모아두는 석유.

산유국: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

담보: 돈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는 물건.

양극화: 서로 점점 더 사이와 격차가 벌어짐.

추진력: 밀고 나가는 힘.

<발문>

1. 소비자물가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물가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4컷 만화로 그려보자.
2. 물건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물가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정권 위기는 국민 밥상에서 시작된다[특파원칼럼/유재동]

최근 미국에선 '런치플레이션(lunch+inflation)'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점심 외식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뜻이다. 직장인들은 밥값이 무서워 출근이 꺼려질 정도라고 한다. 뉴욕은 원래 물가가 상당히 높았지만 요즘은 정말 살인적인 수준이다. 유명 레스토랑 체인 '스위트그린'에서 한 뺨 남짓 너비의 그릇에 담긴 샐러드를 주문하면 팁을 빼고도 16달러(약 2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 햄버거 등 주요 품목 가격상승률은 지난 1년 10%를 웃돌았다.

기름값도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미국인들은 차를 집에 놓고 다니기 시작했다. 대중교통망이 한국만큼 촘촘하지 않은 미국에선 차로 20분이면 갈 거리를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하면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이들이 차를 포기하는 것은 그만큼 주유소 가기가 겁난다는 얘기다. 맨해튼 아파트 월세도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평균 500만 원에 육박할 기세다.

지난해 이후 한국 언론에서는 미국 기업의 구인난이 자주 보도됐다. 일자리는 널려 있는데 사람은 구하기 힘들어지자 회사는 직원들 월급과 보너스를 대폭 올려줬다. 근로자에겐 천국일 것 같지만 정작 이들은 그리 행복하지 않다. 월급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다 보니 생활이 오히려 궁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인 주당 실질 임금은 18달러가량 쪼그라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물가 폭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라며 '푸틴의 물가라는 딱지를 붙였다. 무리한 침략 전쟁과 그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을 더욱 끌어올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인플레이션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올 1월 미국 물가상승률은 1년 전의 5배 이상으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 이 기간 생존에 필수적인 식료품값 기름값 주거비 등이 전체 인플레이션을 주도했다. 점심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며, 자신의 차로 출퇴근하기를 포기하는 미국인도 이때부터 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때 이른 정권 위기로 나타났다. 집권 2년 차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작 30%대를 맴돌고 있다. 비슷한 시기 도널드 트럼프를 제외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낮고, 퇴임을 2 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마저 밀린다. 이런 예외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을 꼽으라면 단연 경제정책 실패일 것이다.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음이 꾸준히 나왔지만 그때마다 당국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묵살하면서 바가지요금 단속 같은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놨다. 팬데믹 충격을 극복하겠다며 전·현직 행정부가 단행한 천문학적 재정 지출과 ‘돈 풀기’는 당장엔 인기를 끌었는지 몰라도 40년 만의 물가 폭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다가오고 말았다.

지난달 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한 전문가는 “경제 성장은 못 해도 국민이 용서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용서하지 않는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앞에서 경고했다고 한다. 실제로 물가나 세금을 잘못 다뤘다가 정권이 흔들린 사례는 세계사에 매우 흔하다.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찰스 멩거는 고대 로마제국 멸망의 주된 이유로 물가 관리 실패를 꼽는다. 새 정부는 그 반면교사를 그리 멀리까지 돌아볼 것도 없이 지금 미국에서 찾으려 한다.

[동아일보 2022-04-26]

미디어 속 경제

우리 집 엔겔지수는?

<어휘 UP>

엔겔지수: 식료품을 사는 데 쓰는 돈(식료품비)의 비중을 말하는 경제용어.

소비: 돈, 물건, 시간, 노력 등을 들이거나 써서 없앴.

수입: 돈이나 물품을 거두어들임. 또는 그 돈이나 물품.

소득: 일한 결과로 얻은 정신적·물질적 이익.

<발문>

1. 엔겔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코로나19와 경제상황에 따라 엔겔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리해 보자.

2. 일주일 동안 우리 집 식료품비를 바탕으로 엔겔지수를 계산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식품 소비 양극화, 식품업계 전략 확 바꾼다

식품 소비에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반영하듯 가성비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프리미엄 제품을 찾는 수요도 많다.

이 같은 소비 양극화는 식품업계 전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좋은 원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좋은 제품을 찾으려는 소비자를 잡겠다는 행보다.

그렇다고 식품업계가 프리미엄 전략만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 대비 고성능을 뜻하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도 많다. 식품업계는 가격은 똑같더라도 용량을 늘려 소비를 독려하는 제품 출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엔겔지수 21년만에 최고치...온라인·백화점 소비 늘어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 가정의 가계·소비 지출 중에서 식료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엔겔지수가 지난해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겔지수는 2019년 11.4%에서 지난해 12.9%로 2년 간 1.5% 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식료품 지출 비중은 소득 하위 1분위 계급이 5분위 대비 9.1% 포인트 높았다.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이 가파르자 소득이 적은 가정일수록 외식 대신 내식을 택한 것이다.

내식 비중이 커지면서 부각된 트렌드는 소비 양극화다. 식품 소비에 있어 저렴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는 추세지만 프리미엄 제품을 찾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판매처 매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프리미엄 제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매출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14.2% 증가했다. 백화점은 대형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전체 매출이 7.4% 늘었다.

"프리미엄과 가성비"...식품업계 이원화 전략 강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식품업계 전략도 바뀌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할 때 달라진 점은 기존 제품은 그대로 판매하면서 프리미엄 제품군을 추가로 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가정간편식(HMR) 시장을 꼽을 수 있다. HMR 시장은 코로나19 여파 이후 비대면 소비 패턴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입었다. 시장 규모는 2015년 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원 성장했다. 5년 만에 100% 이상 성장했다. (중략)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버거킹 프리미엄 와퍼, KFC 프리미엄 블랙라벨폴인치즈버거, 도미노피자 프리미엄 하프앤하프 피자 등 신제품 이름 앞에 '프리미엄'을 붙여 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프리미엄 제품군을 늘려 가격이 비싸더라도 좋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를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이들 업체들은 할인 프로모션 전개 등을 통해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프리미엄 전략 통해 새로운 수요 창출

냉동피자 시장은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

1990년대 처음 선보인 냉동피자는 한때 인기를 끌었으나 인기와 달리 시장 규모는 2015년 50억원에 불과했다. 저렴한 가격에도 품질이 떨어져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위상이 달라졌다. 오뚜기, CJ제일제당, 풀무원 등이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인 이후 V자 반전을 이뤄냈다. 해동하면 갓 구워낸 피자 맛과 비교해 손색이 없다는 소문이 퍼지자 시장은 900억원 대로 성장했다. (후략)

[뉴시스 2022-04-17]

에코 스토리

이산화탄소를 잡아라!

<어휘 UP>

온실효과: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온실가스에 의해 지표면과 대기의 기온이 올라 따듯해지는 현상.

적외선: 햇빛을 프리즘에 비추었을 때 갈라지는 광선 중에서 적색선의 끝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전자기파.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탄소중립: 대기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 만큼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서 결과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0 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

포집: 일정한 물질 속에 있는 적은 양의 성분을 분리해서 잡아 모으는 일.

<발문>

1. 이산화탄소는 어떤 기체이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자.
2. 일상에서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해보자.

<교사 참고자료>

[탄소 중립, 시대적 과제] 석유공사, 동해 바다 아래에 CO₂ 가둔다

지난 2015년 각국이 모여 맺은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은 현재 350억 t 수준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50년 100억 t 까지 감축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도 2020년 11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4.4%(7억 910만→5억 3608만 t) 감축하기로 했다.

이런 계획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 중 하나는 한국석유공사다. 석유공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주요 과제 중 '탄소 포집 및 저장'(CCS)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CCS는 온실가스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지하 저장소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CCS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단으로 꼽힌다는 것이 석유공사의 설명이다. 화석 연료 중심의 기존 산업 구조를 급격히 개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저장하는 CCS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CCS가 세계 온실가스 감축량의 9%를 담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 중 단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CCS에 필요한 핵심 기술 및 역량은 기존 유가스전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것과 유사하다. 적절한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찾는 탐사 기술, 주입하는 기술 모두 석유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세계 주요 CCS 대부분을 엑손모빌, 셸, 에퀴노르 등 다국적 석유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2020년 7월 CCS 사업팀을 신설해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을 확보한 뒤 동해 가스전을 CCS 실증 기술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섰다. 2004년 가동을 시작한 동해 가스전은 18년간의 천연가스 생산을 마친 뒤 CCS-풍력 복합 단지로 탈바꿈된다.

가스를 빼낸 해저 저장 층을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쓰고 해상에는 풍력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에는 이산화탄소를 가두고 지상에서는 친환경 발전기를 돌리는 것이다. 석유공사는 동해 가스전 저장소에 향후 30년간 매년 40만 t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총 1200만 t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석유공사와 정부는 CCS가 본궤도에 오를 경우 국가 산업 구조를 친환경으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안에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통합 실증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2025년 이산화탄소 주입 개시를 목표로 현재 기본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CCS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8 월 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과 기본적인 설계 요소에 대한 기술 협의를 통해 노르웨이 DNV 로부터 이산화탄소 주입용 플랫폼 관련 기본 승인을 획득했다. 동해 가스전 전환을 위해 9 월에는 SK 이노베이션과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

이호섭 석유공사 CCS 사업팀장은 "CCS 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2050 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면서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 사업을 안전하게, 또 성공적으로 추진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2021-12-27]